

오피니언

다산포럼

강명관



'고정림(顧亭林)의 '생원론(生員論)'에 붙인 발문'이란 짧막한 글에서 다산은 고정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생원이 되는 것을 걱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저작 '일지록(日知錄)'은 18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들의 필독서였고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그의 저작 '일지록(日知錄)'은 18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들의 필독서였고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다만 다산이 인용하고 있는 '생원론'은 '일지록'이 아니라 문집인 '정림집'에 실려 있다.

다산은 중국의 생원은 조선의 양반과 같다고 한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중국의 생원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생원이란 이름을 얻게 되지만, 조선의 양반은 무과나 무과를 치르지 않고도 얻는 이름이며, 또 생원(生員)은 1613-1682)다.

백성의 양반화·대학의 일류화

원은 그나마 정원이 있지만 양반은 정원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생원의 경우, 생원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또 다른 집안에서도 생원이 나올 수가 있다.

다산은 조선의 양반으로 인해 생기는 폐해를 걱정한다. 하지만 그는 생원이 줄어들기를 바란 고염무와는 달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양반이 되기를 바란다.

결과적으로 양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가 있어야 어른이 드러나게 되고, 천한 사람이 있어야 귀한 사람이 드러나는 법이다.

어떤가? 양반을 그토록 귀하게 여겨 양반이 되기를 열망하니, 모두 양반을 만들어준다면 어찌 좋지 않으랴.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산의 이 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을 치료할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이른바 일류대학이라는 서울의 모모 대학이 새 캠퍼스를 열 계획이라 한다.

육부에서 정원을 몇만 명씩 불러 주어야 할 것이다.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어떻게 키우겠는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른바 일류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니, 입시경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다산 선생께서 온 백성의 양반화(兩班化)란 기막힌 아이디어로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신 것처럼, 나 역시 여기서 모든 대학의 일류화(一流化)를 통해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을 건져내고자 하는데,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산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미래에 찬물 끼얹은 '세종시 수정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마침내 발표됐다.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조성해 세종시를 연구 가능

삼성그룹을 비롯해 세종시에 투자·입주할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을 위한 인센티브, 주민 지원대책 등도 공개됐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도 국론 분열과 대혼란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와 같은 지방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특정 지역 민심만을 어우르고 지방의 발전방안에 포함될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녹색산업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역점사업과 중복된다.

불과해 기업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대기업 계열사가 나주 혁신도시 투자를 포기하는 등 벌써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현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R&D 특구의 핵심인 국책 연구소 유치 역시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우리는 현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R&D 특구의 핵심인 국책 연구소 유치 역시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세종시 문제의 해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특정 지역 민심만을 어우르고 지방의 발전방안에 포함될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녹색산업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역점사업과 중복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정기우

소비자와 기업 간의 구매상담(예, 보험구매상담), 불만상담(예, 반환거절상담), A/S 상담(예, 차량부품교체)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콜센터는 청정 무공해 그린 산업이자 연간 시장 규모가 수백 조원에 이르는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콜센터는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고용창출은 타 산업대비 대단히 크다.

'광주 콜센터' 활성화 하려면

터에 대해 투자 대비 창출고용을 비교해 보면, 광산업의 1인당 고용 창출 단가가 1억 원이 넘는 반면에 콜센터는 7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직자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CEO의 최종 입지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콜센터 인력 및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향상적으로 수요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콜센터 1개 유치나 증원은 10년 동안 약 900억 원 정도의 직간접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성숙한 시민 의식 배양과 인식 전환. 콜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각종 생활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을 해소시켜주는 생활환경개선의 창구이기에, 생활환경 증진을 위해 일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 배양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완성되는 광주시 콜센터 전용 빌딩(사업비 약 670억 원·1천200억 규모)은 광주시의 강력한 콜센터 산업 육성정책을 대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지역경제에 1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산학관연민의 총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콜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콜센터들에 대한 향상적인 인력지원 및 재직자 교육지원과 함께 대학, 연구소, 광주시 및 유관기관, 특히 우리 광주 시민의 콜센터 업무 및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절실하다.

<전남대 교수·광주 콜센터 서비스 학회장>

재래시장 활성화,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정착해야

요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스스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약해 아쉽다.

인데 굳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겠느냐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대부분 업소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는 소액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소가 있다.

업주들의 이런 반응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에 가는 것을 기피하게 한다.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과 관계 없이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성열·나주시 산정동

기고



이연

내 고향은 북부 노인복지타운이 들어서서 효령동이다. 남구 노대동에 고향 사회에 대비한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 문을 연데 이어 다음 달에는 제2의 노인복지타운이 고향 땅에 들어설 예정이다.

효령동은 13년 전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공원묘지와 화장장을 유치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표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곳이다.

북부 노인타운 준공을 기다리며

지였던 운동장과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분량면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대대로 수익사업을 벌여 잘사는 마을로 탐바꿈시켜 보겠다는 순수한 의지와는 달리 그동안 일부 주민들로부터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었다.

예로부터 효령동의 형세는 풍수적으로 학포란형(鶴抱卵形)으로 전해 내려왔다. 중앙의 산은 황새봉(鶴峰)으로 학의 머리에 해당하고, 필자가 태어나 살고 있는 학동(鶴洞) 마을은 그 몸통에 해당한다.

13년 전 필자가 했던 일을. 의료·건강·문화가 융합된 또 하나의 실버피아가 내 고향에 들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만난 소비도시 광주시가 그동안 수백 100억 달러의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광주시 산업진흥과장>

아이들 그룹 선정적 노랫말 청소년에 악영향

요즘 청소년들이 듣는 아이들 그룹의 노랫말 중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의 선정적인 표현들로 도배돼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은 매체를 통해 전국에 순식간에 한번 퍼지면 그걸 다시 주위담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고 만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곡동

기아차 '20년 연속파업' 신기록 이라니

기아자동차 노조가 11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올 들어 전국 사업장 가운데 첫 파업이자 1991년 이후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해 14일까지 임금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전면파업 등을 벌일 계획이어서 지역경제에 심대한 파장이 우려된다.

기아차는 11일 오전부터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소하리공장, 13일 화성공장 등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교섭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통상임금 300%, 현금 460만 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무분규 타협을 한 현대차의 합의안(300%+500만원, 현대차 주식 40주)에 버금가는 대우를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

無等鼓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대표적인 현상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이다. 즉, 3일은 춥다가 4일은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겨울 기상이다.

연말 연초 한파가 이어지다 지난 8~10일 잠깐 날씨가 풀리더니 12일부터 다시 추위가 타닥 타닥 것이라는 예보다. 기상청은 이후 15일과 16일에는 예외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한사온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위축의 결과다. 중심 기압이 1,050mb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대체로 7일 정도를 주기적 확장과 위축을 반복한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와 이상 지속한 이후에는 4일간 따뜻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각종 행사, 모임 등에 대비해 왔다.



한 공기 덩어리가 응집력을 잃고 남하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 25일부터 올해 초까지 2주 간 이어진 한파는 삼한사온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여기에다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강한 데다 쌓인 눈 때문에 햇빛이 지면에 닿지 않고 반사되는 복사냉각 효과까지 겹치면서 동장군(冬將軍)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2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따뜻한 지역인 광주·전남도 영하권을 맴돌았다. 서울은 지난 7일 최저 기온이 영하 13.6도로 지난 2006년 2월 3일(영하 14.1도) 이후 4년 만에 가장 추웠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는 경제개발을 위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 탓이 크다. 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 빚어졌다면 그 책임은 결국 사람들에게 있는 셈이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 인세인 柳濟喆. 본부장: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